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급성장 중인 일본 식품사고 보상보험

□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회수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판매증가를 시현하며 급성장하고 있음.

- 특히,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만두와 강낭콩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일본 내 많은 관련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품사고 보상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.
-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(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)이 출시한 식품리콜보험은 2005년과 비교해서 2007년 보험료 수입이 2.6배에 이르렀으며, 일본고아손해보험(日本興亜損害保險)의 2007년 식품 관련기업 전용보험 판매 역시 2003년과 비교해 1.85배 증가함.
- 또한 닛세이동화손해보험(日生同和損害保險) 상품은 2006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~10월은 전년동기대비 36% 증가했으며,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(三井住友海上火災) 식품사고 관련 상품도 전년동기대비 9.3% 증가세를 보임.

□ 이들 보험상품은 계약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는 면책되지만, 사전 방지가 불가능한 사고와 제 3자로 인한 피해에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음.

- 식품사고 보상보험은 주로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의 이물질 유입, 제품변질, 식중독 발생, 유효기한 오(誤)표시 등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음.
-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사고 발생시,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제품 회수 및 재고 폐기 비용, 신문 등에서의 사고 게재비, 신뢰 회복을 위한 광고 선전비, 소송비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용을 보상 받게 되며, 일부 상품의 경우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음.
-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식품 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공감하고, 보상 뿐 아니라 식품안전 세미나와 공장현장 리스크 컨설팅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원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.

(일본손해보험 각사 홈페이지 참조, FujiSankei Business I 12/9)